

## 대알 소식지 귀국 보고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에 부교수로 근무 중인 윤종서라고 합니다. 작년 3월부터, 올 3월까지 1년 동안 미국에 있는 Children's Hospital Los Angeles (CHLA)로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다녀온 CHLA 는 미국의 Children's Hospital 중 8위로 랭킹이 올라와 있는 우수한 병원이고, 남부 캘리포니아의 명문 대학인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USC) 의 부속병원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병원의 부속 연구소인 Saban Research Institute 의 Developmental Biology and Regenerative Medicine 이라는 연구 프로그램에 속하여 있는 실험실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Bleomycin 을 투여하여 폐섬유화 생쥐 모델을 만든 후, 미리 준비하여 놓은 생쥐의 amniotic fluid stem cell 을 생쥐의 정맥 내로 투여하여 폐섬유화에 대한 stem cell 의 치료효과를 살펴보는 연구에 관여하였습니다. 이 실험실은 이런 종류의 연구에 있어서 세계에서 톱 클래스에 속하는 연구실이었습니다. 실험뿐만 아니라 실험실 전체가 운영되는 모습, 그리고 실험이 벽에 부딪혔을 때에 연구자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지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실험실 건물의 길 건너 편에는 병원 건물이 있었습니다. 실험실의 제 지도교수님께 부탁하여 병원 쪽의 Pediatric Pulmonology Department 를 접해볼 수 있었습니다. 회진, 컨퍼런스, 그리고 펠로우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미국의 병원의 시설, 임상 연구 방법, 전공의 및 펠로우 교육 프로그램 등이 어떻게 진행되는 가를 경험할 수 있었고, 귀국하면 어떻게 그리고 어떤 일을 할 지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동안 많은 학술대회와 워크샵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학술대회에 가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을 때는 일년에 한 번 정도 밖에 기회가 없고, 참석한다고 하여도 시차 문제와 부족한 영어실력 때문에 매우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동안 많은 학술대회에 참석하였고, 더불어 영어 공부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앞으로 제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가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어서 매우 행복하였습니다. 참석하였던 워크샵 중에는 Cincinnati Children's Hospital 에서 주최한 Pediatric Bronchoscopy Course, Stanford University 에서 주최한 Polysomnography Course, 그리고 Loma Linda Children's Hospital 에서 주최한 Pediatric Fundamental Critical Care Course (PFCCS) 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상기 코스들은 매우 유용한 코스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잘 안 알려져 있어서, 아마도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참석한 코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PFCCS 는 제가 instructor 의 자격을 획득하였기 때문에 향후 국내에 이 course 를 도입하고자 하는 욕심도 갖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와 두 아들, 초등학교 4학년 및 5학년, 과도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가족들은 특히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미국에 있는 동안, 가을에는 축구, 겨울에는 농구, 봄에는 야구를 시켰습니다. 미국은 자원봉사를 활용한 어린이 클럽이 잘 갖추어져 있었고 이 시스템을 이용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애들 운동을 시켜놓고 경기 결과에 대하여 어른 들이 열광하는 모습이 좀 유난을 떤다 싶게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 같이 열광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1년 동안은 저에게 매우 유익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기회를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